

農村에 있어서의

學校圖書館運營

—慶南固城農高研究發表會를 보고—

文 璣 榮

1年 동안에 10餘券의 教科書만으로 學生들의 學習活動을 돕고 있는 우리나라의 中高等學校 實情에서 考察할 때, 너무나 絕望의인 與件임에 비추어서 요즘은 各處 各校에서 學校圖書館의 設置를 서두르고 있음은 甚히 반가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今般 11月 6日 慶南道 指定으로 固城農業高等學校에서 農村에 있어서의 學校圖書館運營에 關한 研究發表會가 開催되었다. 金斗弘 道獎學士의 臨席下에 50餘名の 道內 中高校의 圖書館 司書들이 모인 가운데 午前中 2時間의 公開授業에 이어서 圖書館의 運營에 關한 發表會가 열렸던 것이다.

文化的 交流는 그 大部分이 文書資料로서 媒介되고 있으며 文書資料를 通하지 않고서는 오늘날의 現代社會에서 生活을 營爲할 수 없는 歷史의인 過程에서 살고 있다. 이와 같이 氾濫하는 文化圈內에서 生活하여야 될 우리 中高校學生들에게 몇卷의 教科書에서만 知識을 取할 것인가 宇宙를 向하여서 달을 질 치고 있는 科學萬能 世界의 한 모퉁이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모름직이 知慧를 담고 있는 圖書館에서 더 많이 求하지 않으면 안될 時代임

에 무거운 걸음으로 固城農高의 發表會에 參加하였던 것이다.

圖書館司書 및 學生圖書委員들로 하여금 簡易圖書修理實習으로서 千卷 가까운 圖書가 말쑥하게 書架에 羅列되어 있음은 정녕 아름답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남 모르는 苦心과 努力이 쌓였으며 精誠이 깃들었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百餘名の 在籍을 가진 農業高等學校에 千餘卷으로서 28坪의 閱覽室을 지니고 60席 가까운 座席을 保有하고 있을 뿐더러 DDC分類法으로 分類되어 그야말로 完全自由開架式制로 出發開架하고 있음은 都會地의 學校圖書館에서도 본보기가 안 될 수가 없었다.

그러나 實業高等學校로서 全體에 比하여 實科인 農科에 關한 書籍이 不過 47卷(6%)이라고 하니 오히려 反比例의인 現象인듯 여기어졌지마는 그도 農村學徒이 면서도 人文系의 책을 많이 읽기 때문이라니 좀 考慮해야 될 問題인듯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마는 現在 주어진 與件을 最大限으로 利用改善하여 學校圖書館이 가진 모든 機能을 發揮시킴으로써 自發的이고 創意性인 農業人을 養成하여 農村文化建

設에 參加시킨다는 點에 있어서 그 施設 그 環境으로서는 農村의 特色이라곤 眞正 조 금도 눈에 띄이지 않았다.

특히 科學의인 營農方法을 體得시키고 將次 農村에 돌아가서도 繼續 研究 改善 할 수 있는 道場을 마련 한다면 學生들의 恣意이 거기까지 미칠 수 있을까가 疑心된다고 여겨졌다.

그리고 開館以來 約5 年 동안 閱覽의 統計에 依하면 校內外를 合하여 平均 하루 50餘名인데 요지를 特別 昨年度 보다 今年度에는 閱覽者數가 低下되어 가고 있다니 眞正遺憾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었다.

自認한 바와 如히 圖書館教育의 微弱한 것과 圖書館資料의 新陳代謝의 缺陷이라지만 그에 反하여 語學文學(78%)이 宏壯한 높이를 차지하고 있음은 實業學校로서는 생각할 點이 없지는 않다고 여겨진다. 勿論 아무 책이던지 「읽으면 된다」란 圖書館으로서는 歡迎할 수 없다. 公共圖書館이 아닌 만큼 特別 學校圖書館이니 藏書가 恒常 生氣있고 新新하고도 有用하게 攄維持되어야 하며 그리고 校內的 參考事務用 實驗室로서도 率化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저 아득한 옛날 이야기책을 읽는 곳으로 여겨지면 學校圖書館의 目的의 과는 너무나 距離가 멀어진 結果가 되기 때문이다.

또 1,2學年에 比하여 3學年生의 館內出入이 稀少함도 問題가 안 될 수 없다. 特

히 進學 그리고 社會로 出發을 앞서 그네들에게는 1, 2學年에 못지 않게 圖書館 出入이 要請되어야 할 줄 믿는다.

그리고 特別 在學生들에게 圖書館教育을 1年間に 3時間씩 施行한다니 이는 他校에서도 많이 본 받을 點이 있을 줄 믿었다.

뿐만 아니라 地域社會人에게도 學校圖書館을 開放시키며 또 마을 文庫運動에도 學生들을 積極 參加시키고 있음은 地域社會學校의 맡은바 使命이 컸음을 짐작하였다.

그리하여 下午 늦게 金獎學士의 司會로 質疑時間을 마련하여 釜高·釜女高·慶女高의 各司書와 筆者를 中心으로 各校 質問答辯에 이어 協議會를 마치고 하루의 圖書館人 行事는 끝을 맺었다.

끝으로 더붙일 말은 圖書館에 新刊圖書가 450卷 排列되어 '있었는데 藏書印 한곳 적은 데가 없는 것은 遺憾된 일같이 느껴졌다. 書店에서 購入하여 가지고 온 그대로를 羅列시켜 놓은 것뿐이니…… 藏書로서 入室되면 分類排列까지는 손쉬운 일이 아니로되 圖書原簿의 記載와 藏書印을 적어 두는 것을 잊어서는 絕對로 안될 줄 믿는다.

그러나 알맞은 書架規格에 排列시켜 둔 藏書속에 3百餘名의 마음의 糧食이 들어 있음을 볼때 무엇 보다도 흐뭇한 느낌이 들었다. (慶南馬山中學校司書教師)